

[트렌드 & 스타일]

일금통장 → CMA, 여윳돈 → 주식형 펀드
'저축'서 '투자'로 패러다임 바뀐다

올 상반기 펀드 성적표

국내 주식형 25% '최고'
해외는 중국 20%로 1위

회사원 김찬영(37·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얼마전 일금통장을 증권사의 CMA(자산관리계좌)로 옮기고 여유자금 2천만원을 국내 주식형 펀드에 넣었다.

광주시 동구 총장로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장기명(가명·39)씨는 더 적극적인 경우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의 적금만 남겨놓고 은행에 맡겨둔 예금 5천만원을 인출해 증권사의 홈페이지 시스템(HTS)을 통해 주식 직접투자를 시작했다.

금융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물론 정기 예·적금까지 해약해 증권사의 CMA나 MMF(머니마켓펀드) 등 고금리의 단기 상품으로 옮기고 적립식 펀드는 물론 봉치돈을 한꺼번에 넣는 거치식 펀드까지 주식형 펀드로 돈이 풀리고 있다.

실제로 CMA 예탁금은 지난해 말 8조5천억원이던 것이 올 4월 현재 16조원으로 2배이상 늘었고 국내 주식형 펀드 수탁액은 4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4월 35조9천146억원이던 것이 6월말 39조6천771억원으로 2개월사이 3조7천625억원(10.5%)이나 늘었다.

광주시내 증권사에도 지난 3월부터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하면서 주식형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은 물론 위탁계좌 등 직접투자에 돈이 풀리고 있다.

삼성증권 광주지점의 경우 지난 한해 수탁액 총액이 2천300억원이었으나

증권사CMA 낙달세 2배 늘어난 16조원

주식형 펀드 두 달 만에 3조7625억 늘어

"장기·분산 투자로 손실 위험 최소화해야"

올해는 지난해 말 현재 3천800억원으로 6개월도 안돼 전년에 비해 1천500억원(전년대비 65.2%)이나 늘었다. 수탁액 증가폭이 많은 날은 하루에 30억원이 넘게 들어 오기도 한다. 새로 들어오는 돈의 90%이상은 주식형 펀드와 직접투자를 위한 위탁계좌가 차지하고 있다.

김태현 삼성증권 광주지점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95%이상은 주식형 펀드를 찾고 이들 주식형 펀드중 국내와 해외의 비중은 6대 4 정도가 된다"며 "해외펀드는 지난해 중국 등 이머징마켓이 강세였는데 올해는 유럽과 남미 등으로 다변화 되고 있고 수자위·대체에너지·명품에 투자하는 테마펀드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자들도 투자형 상품에 자산을 집중시키는 마한가지다. 금융자산 3억원 안팎을 가지고 있는 은행 PB(프라이빗 뱅킹)센터 고객들도 올해 초 해외펀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최근에는 국내 주식형 펀드로 눈을 돌리고 있다.

광주은행 PB사업부 이경희과장(재무상담역)은 "나이가 많은 고객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PB고객들이 주식형 펀드와 ELF(우가연계펀드) 등 투자형 상품에 자산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과장은 특히 "이들은 지주회사 주식이나 인프라에 투자하는 테마펀드나 조선이나 IT(전기·전자) 등 특정 업종에 투자하는 섹터펀드를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분산투자로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지역 금융기관의 여수신동향을 보면 적금을 꺼서 투자형 상품으로 옮기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저축에서 투자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투자형 상품의 경우 손실 위험도 있는만큼 장기투자와 분산투자라는 2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은행 PB사업부 이경희과장(오른쪽)이 6일 광주은행 본점 PB센터를 찾은 고객과 함께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직접투자 부담되고 펀드투자 어렵다면
맞춤식 자산관리 '랩 어카운트'를

주식 직접투자를 하거나 위험할 것 같고 펀드에 가입하자니 수수료 부담에 내 마음대로 운영하기도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투자형 상품은 없을가.

이런 사람들에게 맞춤식인 '랩 어카운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랩 어카운트는 '포장하다(Wrap)'는 뜻과 '계좌(Account)'를 합친 말로 고객이 자산을 맡기면 증권사 담당 매니저가 알아서 주식 종목에 선정해 운용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전문가가 굴러간다는 점에서 개인의 맞춤형 펀드라고 할 만하다. 펀드와 비슷해 보이지만 고객 자산을 공동으로 투자하는 펀드와 달리 랩은 고객별로 설계된 계좌단위로 운영한다.

고객 계좌에서 바로 운용이 되기 때

문에 포트폴리오 현황을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공동투자하는 펀드처럼 '규모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덩치가 작아 시장상황에 따른 빠른 대처가 가

능한 장점이 있다.

본인 명의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배당은 물론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수수료가 싼 점도 장점이다. 펀드와 달리 해지할때도 수수료를 묻지 않고 주식 매매 수수료도 없다. 다만 운용수수료를 연 2%안팎 부담하면 된다.

주식은 물론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 투자대상이 다양한 장세에 유연

하게 대응할 수 있어 높은 수익률을 쫓기에 좋은 상품이다.

개발계좌로 운용되다보니 일률적인 수익률 비교는 힘들지만 기본형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따져보면 대우증권의 '마스터랩 포커스 랩'은 지난해 기준으로 1년 수익률이 109%에 달하는 등 같은 기간 주식형펀드 최고 수익률을 달리고 있는 '동양중소형고배당주식'

의 77.2%보다 훨씬 높다. 또 대다수의 랩 상품이 최근 1년간 코스피지수 수익률(40.3%)을 능가하고 있다.

박종모 국토교통부 장관 상무영업소장은 "주위에서 증권사 직원들에게 돈을 맡겨 주식 직접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를처럼 리스크를 어느정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권장할 만한 상품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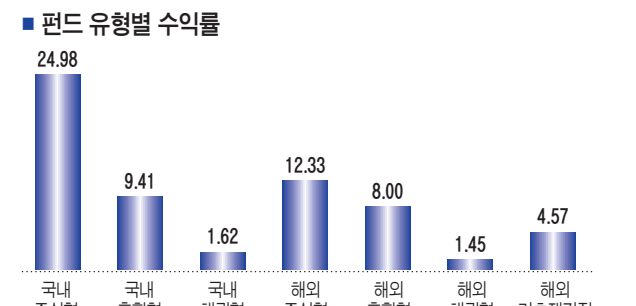
6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무려 24.98%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코스피지수가 20.81%나 급등했기 때문에 주식형펀드 수익률이 코스피지수 상승률을 앞질렀다.

펀드 유형별로는 글로벌 증시의 동반 강세의 영향으로 국내 주식형(24.98%)에 이어 해외주식형(12.33%), 국내혼합형(9.41%), 해외리츠계간접(4.57%)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채권형펀드 수익률은 극히 낮아 국내채권형과 해외채권형 모두 1.02%와 1.45%에 불과했다.

해외 주식형펀드를 지역별로 보면 중국의 수익률이 19.87%로 단연 1위를 차지하는 등 친디아, 브릭스 등 이머징마켓 펀드가 평균 13.66%의 수익을 올렸다.

반면 올 초 기대를 모았던 인도, 베트남, 일본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선진국 펀드도 미국(4.07%), 유럽(6.24%), 일본(6.77%) 등의 순으로 저조했다.

/정필수기자 bungy@



상반기 수익률 상위펀드

Table with columns: Fund Name, Operator, Investment Amount, 1 Year Return, and Cumulative Return. Top funds include Mirae Asset 3rd Domestic Equity Fund (24.98%), Mirae Asset 1st Foreign Equity Fund (12.33%), and others.

해외주식형

Table listing foreign equity funds with columns for fund name, operator, investment amount, 1-year return, and cumulative return. Includes funds like BNP Paribas and others.

해외주식형

Table listing foreign equity funds with columns for fund name, operator, investment amount, 1-year return, and cumulative return. Includes funds like BNP Paribas and others.

대인동삼일부동산: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내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LCE타워(주): 첨단지구 LCE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가공인중개사: 상가건물 매매. 2007 최신공구지분도 책 판매개시!!

한일지도판매(주): 2007 최신공구지분도 책 판매개시!!

효성공인중개사: 대지매매(교회, 원·투룸부지). 목욕탕고, 공장부지.

알파공인중개사: 상업용 건물매매. 토지 매매.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21세기부동산컨설팅. 2006년도 광주지역 예식장 선호도!!